

청소년 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방안 연구*

한 승 회**
 노 혁 연
 이 혜 연
 맹 영 임

- I. 문제의 제기와 논의의 범위
- II. 청소년의 생활시간
- III. 청소년 생활시간활용 및 수련활동시간
- IV. 바람직한 수련활동시간 확보방법
- V. 결론 및 제언

I. 문제의 제기와 논의의 범위

본 연구는 「청소년기본계획」에 기초한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탐색해보는 방안과 함께 청소년들의 생활시간과 시간활용 욕구에 따른 합리적 시간확보방안을 살펴봄으로써 다른 관점에서 시간확보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참여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기회의 제공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각종의 문헌, 신문, 잡지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청소년의 일상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문헌연구와 실제 청소년들의 시간활용실태와 수련활동참여시간에 따른 인식을 알기 위해 설문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학생청소년의 하루생활시간과 그 시간에 관한 의식, 그리고 수련활동 참여 시간에 관한 인식영역으로 구성되어, 전국의 청소년인구에 비례에 따라 학생청소년 1,6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1991년 8월부터 설문구성을 하여 9월 한달동안 선정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10월 부터 회수된 설문지에 대한 통계처리 작업을 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학생청소년의 하루생활시간과 생활

*이 논문은 본 연구원의 1991년도 연구사업인 “청소년 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방안 연구”의 결과 보고서를 요약한 것임.

**공동연구자는 본 연구원의 한승회(책임연구원), 노혁(연구원), 이혜연(연구원), 맹영임(연구원) 임.

시간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 그리고 수련활동 참여 시간에 관한 인식등 모두 3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은 청소년을 지역별 인구비례로 나누어 총 1,600명을 선정하였고 이중 241명이 오류검토작업을 통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아 총 1,359명의 설문지를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I. 청소년의 생활시간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시간은 크게 보아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시간의 전부이고 부분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청소년수련활동 시간을 양적 개념으로 보아서는 그 일부가 되지만 시간에 관한 개인적 인식에 따라서는 전부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시간을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되는 내용들의 나열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생활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시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들의 생활시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 참여 시간을 합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시간들을 찾아내어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으며, 또한 생활시간을 활용하면서 생기는 욕구와 시간에 관한 인식과 관련시켜 생활시간의 실태를 파악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이 말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연령대의 느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어른이 될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느낀다. 그것이 삶이란 한계 상황속에서 비롯되는 어쩔수 없는 초조감이기도 하지만, 삶의 과정이란 측면에서 또 다른 인식을 가질 수 있

다.

어른들은 시간이 곧 돈으로 환산될 만큼 자율적인 시간의 세계속에서 살고 있다. 다시말해 어른에게 시간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똑같이 주어진 과정이다.

한편,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자신의 목표와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더 구체적으로 말해 바람직한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인 동시에 젊음을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타율적인 요소가 강한 반면 매우 많은 가능성과 사회적인 허용성을 가진다.

물론 적지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어른들과 거의 비슷한 때로는 똑같은 생활환경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신체나 정신적인 조건의 싱싱함에 의한 무한성과 어른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가는 가변적인 개념이 된다.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천체 물리학자인 존 그리빙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시간이란 시계나 달력에 표시되는 일정한 페이스 *pace*로 가차없이 흘러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본래 일그러지고 굽은 것이다. 그 최종적인 결과는 그것을 측정할 사람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극단적인 예를들면 거대한 별이 붕괴되어 발생한 블랙홀 *black-holes*은 시간을 지워버리면 그 부근에서는 시간이 정지되어 버린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시간의 물리적인 개념현상으로 본 것이지만 사람의 인식변화에 따라 시간이 달라진다는 의미에 간접적인 시사를 준다.

시간이란 객관적이지만 동시에 주관적인 것이다. 시간이란 사람마다 생각하기에 따라 다

르다. 각 개인의 의식수준에 따라 어떤 사람은 1초를 1년처럼 길게 느끼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 반대의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이렇듯 시간은 시간이 갖고 있는 단수의 개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계층 또는 환경적 요인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서정주의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김소월의 시중 「저 달이 이렇게 사모칠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라는 귀절이 보인다.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럭저럭 건성나발로 살던 사람이 모처럼 오랫동안 제 정신이 나서 보고 싶던 어떤 여자쯤 눈에 삼삼히 그때 따라 유달리 실감되었던 걸 말한것이겠지.—

즉, 같은 시간이라도 어떤 느낌과 마음을 갖고 활동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주는 의미는 매우 다르다.

이것은 주어진 시간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쓰인다는 뜻과는 같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인식과 내용을 갖고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시간의 성과나 질이 다르게 나타남은 물론, 그로인해 한 사람의 의식과 태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시간은 많은 부분이 타율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사실 어른들의 경우 시간을 활용하는 주된 범주는 거의 비슷하지만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청소년 더우기 학생 청소년의 경우, 그들의 시간은 교육이라는 제도적인 틀 속에 대부분이 묶여져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젊고, 살아있고, 움직인다. 그러므로 그들은 시간을 또 다른 인식의 관점

에서 보면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새롭게 조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시간을 그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의미있게 즉 다가오는 삶의 준비기로서, 또한 그 자체가 의미있는 과정으로서 봄으로써 새로운 시간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바, 이에 따라, 그들이 하루를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한달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는지, 그리고 일년동안에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자료됨은 물론, 나아가 수련활동 참여시간의 합리적 모색 방안 마련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다.

1.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하루는 24시간이다. 학생청소년들에게도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 하루가 평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이나에 따라 하루의 시간은 앞서 말했듯이 단순한 단수개념이 아니고 25시간도 되고 23시간도 될 수 있다.

지루한 날은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 재미있는 하루는 시간이 무척 빨리 지나간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 자체의 변화가 아닌 의식의 흐름에 있는 시계가 바뀐 것이다. 실제 시간과 함께 움직이는 의식의 시계는 흘러가는 상태에서 어떤 의미도 주지 못하지만 그 시간을 보내고 난 후 의식의 반추를 통해 평가를 내린다.

그러나 불행히도 학생청소년들에게 시간은 학업을 중심으로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의식의 중심도 공부가 모든 시간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하루는 학업을 중심으로 한 여러가지 생활배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관점이 가

장 현실적일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의식화되지는 않지만 움직이고 있는 시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흐름을 내용별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밥먹으며 시계보고 시계보며 또 먹고

학교시간은 더럽게 긴데, 잠자는 시간은 왜 이리 짧을까. 학교가 잠자는 곳이면 좋겠다. 책상이 침대라면 좋겠다. 간신히 일어나 시계를 보고 한숨을 쉰다. 세수를 하면서 밥을 먹을까 말까. 밥을 먹으면 차가 가버리고 밥을 안먹으면 차를 탈수 있는데 밥을 먹으면서 시계보고 시계를 보면서 또 먹고 시계를 보고

학생청소년의 하루는 대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부터 등교시까지이고, 둘째는 학교생활, 셋째는 하교시부터 잠자리에 들기 까지의 시간이다.

대체로 아침시간은 매우 분주하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6시부터 8시 사이인데, 청소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갠다든지,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씻는 일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같은 일들을 계층별로 차이가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즉 어느 계층의 청소년이나 씻고 옷을 입는 일은 스스로 하지만, 이불을 스스로 개는 일을 하는 경향은 빈민층 청소년들이 강했고, 옷을 갈아입는 것이지만, 빈민층 청소년들은 많은 수가 속옷만을 입고 자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외출복을 더입는 식이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p.30).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계층이나 연령에 크게 관계없이 정신없이 바쁘게 아침시간을 보낸다.

내 치솔은 우리 식구 치솔보다 휴식을 많이 한다. 나는 용의 검사할때만 치약을 조금 묻힌다. 그리고 다음 주 용의검사 할때까지 휴식을 취한다(백영현, p. 187).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학교에서의 한시간이니 단 10분도 지루하게 느껴지는데 반해 집에서의 아침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난다. 이것은 비단 학생청소년의 경우만은 아니고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른들에게는 마찬가지이지만 그들에게 더우기 짧게 느껴지고 빨리 지나가는 이유는 수동적인 행동과 과정이 계속되는 까닭이다.

학생들은 아침시간을 학교가기 위한 준비과정으로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사실 학교생활의 즐거움은 능동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피동적의 행동양태의 작은 과정속에서 이루어지듯이 학생들은 학업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의무로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에서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

이것은 연령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가지는 원초적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시간은 양극적인 현상이 보인다. 하나는 한없이 지루하고 고통스럽다는 느낌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런 의식 없이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다. 타율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지루하고 괴롭다는 사실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는 의미는 적어도, 시간을 그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면 타율을 준비하는 것도 자의적인 내용은 거의 없다는 사실으로 인해 그 시간에 전혀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원하지 않은 일을 준비하는 시간은 아무런 기대감도 없을 뿐 아니라, 다가오는 일에 대한 고통때문에 의식 없이 지나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청소년들의 아침시간은 멍한 상태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없이 그냥하던 버릇대로 움직인다. 만일 그들에게 이 시간이 이

성 친구와 약속이 있다든가, 친구와의 즐거운 약속이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의 의미와 관점은 달라진다.

이성친구와 시간을 보낼 계획을 세우며 '루'거리며 양치질을 하고 세수하고 또 거울을 한번보고 옷맵시에도 신경을 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학교갈 때 준비하는 시간과 똑같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준비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강한 바람을 나타내며 속으로 웃을 것이다.

한편 어떤 면에서는 아침시간을 학교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든 관심이 없다. 단지, 약속된 시간, 즉, 등교시간을 지키기 위한 노력만이 있을 따름이다.

된다. 또 된다. 어른들은 비웃는다. 한 5분만 일찍 일어나면 될 것을, 어제는 그말대로 실천해 보았다. 그래도 된다. 또 된다. 왜 뛰느냐? 학교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왜 지각안하려고, 야단맞기 싫어서, 근데 왜 뛰나. 모르겠다. 그것 생각할 겨를이 어디있나

결국 학생청소년들의 아침은 일상생활에서 아침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있지만, 그들은 옷입는 것, 세수하는 것, 밥먹는 것, 가방을 챙기는 것 모두를 시계와 같이 한다. 어쩌면 일어나기 전부터 시계와 시간은 그들을 강박하는 거대한 공룡이면서도 달콤한 유혹인지 모른다. 그렇게 그들은 학교로 향한다.

2) 지루한 공부, 재미있는 친구

숨이 턱까지 차서 도착하면 일찍 나와서 우아하게 앉아있는 친구들이 불쌍해보인다. 무슨 영화를 보자

고 새벽같이 나와서 기다리나. 우선, 입씨름으로 정신을 들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첫시간부터 땡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하루는 땡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진리였으면 뇌카리면서 무사히 첫시간을 보낸다. 이제부터 꼼짝없이 기계적으로 오후까지 닭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책상과 함께 살아야 한다. 때론 너무 좋아 입술로 부딪치고 뺨을 부딪친다. 선생님의 강한 질투의 눈길에 때로는 곤혹을 치른다. 책상을 향한 나의 책사랑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흔히 피교육자의 3대 괴로움을 표현할때 출고, 졸립고, 배고프다는 말을 쓴다. 학교에서의 학생은 열심히 공부한다. 그런데 졸립다, 배고프다. 아침 첫시간 부터 오후 끝시간까지 졸립고, 휴식시간 마다 배고프다. 그리고 무섭다, 출다. 지겨워서, 무서워서, 하기 싫어서.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시간은 잘 조직화된 내용으로 가득찬 시간표에 움직인다. 그들이 정한것이 아닌 정해진 시간에 의해 생활한다. 공부시간에 휴식을 하면 안된다. 휴식시간에 공부를 하면 비웃는다.

체육시간이 들어 있는 날마다 우루루 몰려 와서 묻는 말. 선생님 체육합니까? 그 말이 듣기 싫어 체육시간은 빼먹지 않고 운동장에 나갔는데도, 체육복을 갈아입고 있는데도 "체육합니까?"다. 매일 딱딱한 나무의자에 5, 6시간을 앉아 있어야 하는 일은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는 아이들에겐 고역이다. 더구나 조용히해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안도록 들어온, 또 들어야 할 교실에서 지루한 산수문제나 풀고 담임의 꾸중을 들어야 하는 아이들에겐 체육시간이야말로 달로 일하다 먹는 새참처럼 기다려진다.

어슬렁거리며 귀찮게 나간 운동장에는 시작종도 치기전에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다. 체육부장의 조심스런 말이 들린다. "야 너거들 줄 줌 잘서라. 저번때 맨처로 선생님이 트집잡고 체육안할라"(백영현, p 145)

그렇다고 학생들이 공부를 필요없는 것, 그것을 위해 보내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생각지도 않고, 그들에게도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많지만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고 강의를 듣는 지적 학습과정은 비록 그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청소년들을 위한 합리적인 교과 과정이라 할지라도, 늘 고통스러움을 준다. 심리사회적인 면에서 보면 청소년들은 표변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그들은 엄청난 공상도 즐기고, 마구 뛰어 놀고 싶어하며, 강한 호기심도 있다. 학교 교육이 그러한 청소년의 특성을 바탕으로 짜여진 교육체계속에서 운영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엉뚱함이 튀어나온다.

그러나 타율적인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시간은 학업성취라는 면에서는 생산적일 수 있으나 즉, 성인을 위한 준비기간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면에서는 당위적일 수 있지만 청소년들이 하나의 개체로서 그 시기에 삶의 총체적인 즐거움과 의미를 갖는 자발적 움직임을 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소용가치가 있는 시간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생활 시간이라는 개념을 물리적 시간을 그 속에서서 내용면에서 본 것이지,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시간을 의미화한다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학교는 두가지 축의 맞물림으로 인해 움직인다. 하나는 학업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체제 속에서 특별한 인간관계이다. 앞서 말했듯이 학업과정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타율적인 과정이다.

이에 반면 충분히 자율적인 즉 스스로 원하는 기대효과의 과정을 가질 수 있다.

학업이 학생들에게는 큰 공룡으로 보이지만 그속에서 여전히 청소년들이 갖는 속성들이 어

떤 형태로든 비집고 나타난다.

저희 학교 선생님은 멋쟁이에요. 사실 점심시간에 점심먹는 친구는 거의 없구요. 점심을 먹어도 한 5분이면 끝나요. 선생님은 나머지 시간에 반장이나 혹은 그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해서 갖가지 오락을 마련해요. 노래도 하고, 팝송해설도 하고,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평도 하고, 흉내도 내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잘 안들어 오시고,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강요하지 않으셔요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사실을 발견하다. 학교는 재미있는 곳이 아닐지라도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같이 어울려 행동하는 것은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고, 의미를 가진다.

친구들과 재잘거리는 소리, 그시간.

학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지겨운 시간.

화장실에서 툭 치는 장난을 하는 휴식시간.

학생들은 휴식시간과 점심식사시간을 그들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노는 시간'으로 생각한다. 한 1학년 여학생과 3학년 남학생은 이 노는 시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잘막히 노는시간 10분! 우리는 다음 시간 수업준비보다는 자리를 떠나 떠드는 것이 더 재미있다. 하루에 학교와서 노는 시간이 많으면 1시간에 10분 정도지만 우리는 이 잘막한 10분을 재미있고 즐겁게 활용한다. 국민학교 땐 선생님께서 교무실에 내려가지 않아서 너무 시끄럽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가시기 때문에 떠들어도 선생님께선 누가 어떻게 떠든지 모른다.

헤롱헤롱 졸다가도 끝 종치는 소리에 우리는 갑자기 기운을 되찾는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일까? 교실에서 약식 배구, 우유갑 하키, 그냥 무작정 튀기, 그럴 때 우리의 신조는 '인생을 즐기는 것'이다. 교임이고 뭐고 격정거리가 없다. 그럴 즈음에 들리는 또 하나의 종소리. 우리는 풀이 죽어 교실로 들어간다. 딱딱한 책상에 앉은 순간 생활신조도 바뀐다.

다. ‘인생은 피로움의 연속’(이영덕, 1991).

때르릉 종이 울린후, 선생님 발자욱 소리를 듣는 그 초조와 기대의 시간.

문제는 그 시간들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둘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어떤 시각을 줄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학교공부는 필요하지만 지겹다. 그리고 아쉽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지 않다. 그 과정속에서 어떤 시간에 새로운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동전은 앞면만 있을 수 없다는 진리는 새로운 사실, 아니 누구나 알지만 큰 강박속에 귀찮아 별 의미를 주지 못했던 시간을 찾을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한다.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향한다.

3) 집에 다녀오겠습니다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삐삐’경음이 고막을 후빈다. 9시가 됐다는 신호다. 또한 이젠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기도 하다.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선생님” 하루의 일과가 끝나서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교문을 나설때가 제일 마음이 가볍고, 다소나마 까닭모를 안도감이 나를 감싸는 건 무슨 까닭일까? 저녁 별들이 곱다. 언젠가 별뚝별을 보며 소원을 빌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그런 기분도 나지 않는다. 하루종일 딱딱한 나무 의자위에서 썩인 피로나 알 수 없는 불만을 누구에게나 토로하며 울부짖을 힘도 없다. 그저 집에 빨리 가서 영혼이 없는 이 육체를 눕히고 싶을 뿐이다. (이땅의 아이들과 함께, p.61).

학교수업 끝나면 집으로 돌아간다. 친구들과 삼삼오오 짝을 지어, 때로는 혼자 터벅터벅 집으로 향한다. 학생들은 그 시간동안 자신들도 생각지 않은 많은 것들을 한다.

군것질 거리를 찾기도 하고 물건이 진열된 가게를 기웃거리며, 전자오락실을 가기도 한다.

혼자 올 때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 집에 가서 해야할 일 등을 생각하며 길가의 돌멩이를 툭툭 차기도 하고, 발걸음을 세면서 걷는다. 이런 것들 대부분은 집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큰 목적 때문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 행위이며 시간이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학교에서 내준 숙제와, 자신의 학업에 대해 생각하며, 어떤 형태든 학교의 학습을 또 다시 조직적으로 실행하는 곳- 예를 들어 과외활동이나 학원에서의 수강-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특히 상급학교의 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경우, 이 행동은 거의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학교시간표와 같이 조직적으로 짜여지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강한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는 소위 자율적인 학습을 진행한 다.

비록 이것은 제도적인 책무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간접적 압력을 느끼는 어쩔 수 없는 자기 선택적 행위이며 시간이기 때문에 이중 부담을 느낀다. 즉, 이시간은 학교내 학습 시간을 보완하는 부분이므로 자율을 가장한 심각한 타율로 강조하지만, 또한 그 행동이나, 시간을 외면해버리면 불안해진다.

만일, 상급학교의 진학열망이 강한 학생이라면 이 시간은 어떤 시간보다 즉 학교에서의 수업시간 보다는 더 큰 동기유발의 시간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학생이 받는 심리적 압박은 고조에 달한다.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마치고 나면 7시 30분이다. 아침보다는 낮지만 어쨌든 딱딱하게 느껴지는 저녁 도시락을 부리나케 먹고, 열전의 용사들이 모여있는 성찰이네 집으로 간다. 그곳은 정말 시간이 돈이다. 과외선생님이 수준을 맞추어 짜는 멤버들은 하루의 기본적 격전을 치르고 난 축쳐진 모습들이지만 방정식의 리듬에 맞추어 숨소리를 죽이는 불펜의 사각거림이 시작된다. 무표정한 친구들,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는 아니 할 필요가 없는 그 시간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마음은 그저 무감각하다.

학생들은 잠시 집으로 간다. 휴식을 취하려 하기 보다는 하루동안의 학습내용을 반성하려 간다.

집에 돌아온 학생들은 신문, TV, 가족과의 담소 등을 때로는 하지만 그의 머리속엔 공허로운 메아리로 다가온다. 졸리운 눈으로 이곳은 학교가 아니지 빨리 선생님을 만나 뵈려 가야지.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많은 수의 학생들은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내일 일은 잠자리에 들기전에 고민해도 충분하다. 그들은 고학년이 될수록 곧장 집에 가기를 꺼리거나, 집에 가서 가방을 놓고 거리로 나돈다. 특별히 할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가 아닌 곳, 집이 아닌 곳에서 있는 시간이 좋다.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이곳저곳 기웃거린다.

때로는 집으로 돌아오자 마자 TV나 라디오에 묻혀, 애국가 시작부터 끝까지 듣고, 그것도 모자라 이어폰을 끼고 음악과 함께 잠을 청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방과후의 시간을 매일 일정하지 않게 자유롭게 보내려고 애쓴다. 물론 그 시간조차 적지 않은 계약을 받고 있지만 그

래도 하루 중 가장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나 이렇듯 진학을 위해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물론 시기의 문제이지만)도 청소년으로서 갖는 관심과 흥미가 있으며 결국 가정으로 돌아와 다음날을 준비한다. 비록 학교공부의 연장에서 방과후를 보내는 학생도 자신의 태도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을 보는 인식의 차이는 크다.

시간은 그 절대량이 무척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 양이 시간의 질, 추상적인 뜻이지만 시간을 보람있게 보내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많지 않다. 생리적인 문제이지만 때로는 많이 잔다고 피로가 풀리기 보다는 짧은 시간 숙면함으로써 개운함을 느끼는 때가 종종 있다.

모두가 필요로 하는 절대시간(그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회의는 있지만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을 제외한 시간이 양적으로는 부족하고 그나마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부족하다 한지라도 그에 대한 새로운 시간이 제시되어야 한다.

학생청소년은 하루를 학교가는 준비와 학교생활, 방과후 가정이나 사회(친구들과 관계)에서의 생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자명한 전제 이 전이라도 그 시간들 속에서 어떤 시간들을 택해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만족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나 행위를 유발시키느냐는 시각의 전환에 달려 있다.

다시말해 학생의 하루 생활주기를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상당한 어려움과 문제가 따른다. 그러므로 주어진 현실과 상황속에서 각각의 시간을 어떤 인식을 갖고 활용하느

냐에 따라 청소년들의 하루 시간은 표면적으로는 획일적일 수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매우 다양해 질 수 있다.

학생들은 하루를 인간존재로서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필요한 생활과 소위 그들의 본분이라고 일컬어지는 학업과정으로 보낸다.

흔히 이것은 최종적인 시간속에서 하루를 지내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실제 그 시간들이 여러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는 사실과 시간과 청소년이라는 가변성을 연관시켜 주는 하루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준다.

하늘을 보자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그때 떠오르는 마음이 여유가 하루의 생활 중 가장 짧은 시간이지만 가장 큰 정신적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그것이 삶의 한 목표가 되는 원동력, 그리고 즐거움과 인간으로서의 희노애락을 느끼는 순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의 하루는 25시간이 있어도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자유롭게 줄 수 있는 시간을 10분이라도 찾는다면 그것은 하루를 보내는 핵심이 될 것이다.

2. 한달을 어떤 계획으로 생활하나

신세대의 꿈은 거창하지 않다. 그들은 막연한 미래보다 분명한 현실에 집착하며 비합리적 회생을 요구하는 공동체적 삶보다 합리적이고 안전한 개인생활을 추구한다. (신세대-그들은 누구인가 上, p.39).

일반적으로 학생청소년들에게 한달의 의미가 깊이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한달은 용돈 지출계획, 월정고사, 그리고 평균 4번의 일요일, 조금 더 의식을 하고 있다면 새달을 맞는다는 가벼운 긴장과 각오 정도이다.

왜냐하면 타율적인 시간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들에게 한달의 모습은 하루하루가 모인 날들로서 편의상 구분짓고 있다는 의미외에는 별다른 활용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달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다. 어른들과 같이 월급제 또는 월단 위로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생활속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한달은 하루보다, 일년보다 더 큰 비중있게 생각하는 것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은 시간개념과 함께 자신의 행동이나 범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설정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시간의 미래성과 관련이 깊다. 좀 다른 관점의 예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재의 시점을 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는 시점은 순간 순간 과거로 바뀌고 계속 새로운 현재 시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길우 역, p.90)

이같은 관점이라면 학생청소년에게 하루의 의미는 단순한 생활속, 즉 자신의 생활 가운데 있는 존재의 움직임이지 그것을 통제하거나 구성할 수 아무런 가시적 현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적어도 주변에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놓여있는 시간’이 그들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반영하는 보일 수 있는 시점 다시말해 시간들이 되어질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한달의 시간이 어떤 관점에서 계획되고 생활되어 지는 지를 알아봄으로써 학생청소년들의 일상생활시간과 그 관념, 행동 범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1) 계획한 무계획의 휴식

한달을 구분하는 개념은 많다. 초순, 중순,

하순으로 나누기도 하고, 첫째주, 둘째주, 세째주, 네째주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 구분방식이 어떻든 간에 한달이라는 시간은 하루하루가 모인 시간이라는 것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루는 대체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의 전시간을 의미하지만, 한달은 그 하루 하루에 날짜가 부여되어 있으며 그 날들은 또한 평일, 일요일, 토요일, 그외에도 달의 성격에 따라서 월중행사와 방학 등의 특별한 시간개념이 있는 하나의 단위시간이 된다.

학생청소년들에게 학업만큼 중요한 것은 없지만 그것은 당위요, 미래지향적인 행위로 비추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부가 지금은 지겹지만 미래가 밝고, 유흥가와 타락은 지금은 신나고 재미난 것 투성이지만 미래가 어둡고 암울하다. 난,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박준형, 1990).

청소년들은 공부보다는 노는데 관심이 많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물론 이것은 공부에 대한 시각의 문제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들은(적어도 많은 어른들과 함께)공부를 학교라는 제도의 틀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피동적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노는 일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라 여긴다.

따라서 한달에 4~5번 있는 주말(일요일까지 포함)은 그들에게 자신의 자율적인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계획할 수 있는 긴요한 시간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많은 일들이 펼쳐져 있다. 공부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일이지만 대부분 그것은 보다 자유롭게 '놀 권리'를 갖기

위한 사전책무에 지나지 않는다. 청소년의 주위에는 많은 환경의 유혹이 산재해 있다.

텔레비전, 라디오, 전자오락실, 공놀이, 롤러스케이트장, 청소년디스코장, 그리고 재미있는 친구들과 이성과의 멋진 만남 등 무수히 많다. 이러한 선택은 학생의 개인적 가치와 선호 그리고 교급별, 남녀별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자율성을 갖고 있다는 점때문에 어느 것을 택해도 즐겁다.

중학생들은 비교적 주말을 자유롭게 지내는 반면에 고등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간이 7~8시간이며, 사설독서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휴식을 취할 때도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며 지낸다. 그래도 평일에 비하면 여유가 있어 텔레비전도 보고 친구들과 운동을 하면서 지내기도 한다.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축구·농구·탁구 등 운동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공통적이며, 특히 고등학생이 되면 음악에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부모에게 오디오 시스템을 사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디스크를 사서 모은다든가, 음악을 듣는 시간이 증가한다. 악기 중에서도 기타를 배우고 싶어하며, 실제로 기타를 칠 줄 아는 학생이 많다. 클래식보다 팝송, 재즈, 가요를 선호하며, 좋아하는 가수들의 라이브 콘서트를 가기도 한다. 또 영화를 좋아하는 학생도 많아, 친한 친구들과 주말에 만나 점심을 사먹고 영화관에 가기도 한다. (황정규외 3인, p.24)

그러나 이렇게 노는 활동은 공부와 학업과는 달리 집안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할수록 놀이문화도 매우 물질화되고 과학적이고 값비싼 도구를 이용하게 된다. 즉 예전에는 친구들 몇몇이 모여서 동네 길목에 선을 그어 놓고 갖가지 몸과 몸이 부딪치는 놀이를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전자오락기에 앉아서 서로 편을 갈라 오락기를 매개로 각종 놀이를 즐긴다. 물론 이것은 발전

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경제적 정도에 따라 각 계층간의 놀이문화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한달의 계획을 짜는데 있어 금전적인 여유가 그들의 놀이 나아가 자율적인 문화 향유의 선택기회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을 계획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매력때문에 별로 하는 일 없이 지내더라도 무척 기다려지고 즐거운 시간이다. 그들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지만 또 다른 기분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친구를 만나고 평일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만나지 못하는 이성친구와의 교제도 한다.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말을 이용하여 만난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성교제를 건전하게 하면 괜찮다고 의식적으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고등학생 때에 이성교제를 하는 것은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고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을 한다. 학생들도 교제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편이기 때문에 극소수의 학생만이 꾸준히 데이트 하는 여자친구가 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그룹 미팅을 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미팅 주선은 중학교 때 남녀공학을 다녀 여학생을 많이 안다든가, 여자친구가 있는 학생들을 주선한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교에 입학하면 미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미팅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황정규의 3인, p.24)

많은 학생들의 경우 한달 동안에 공부하겠다는 의지는 강해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 그들의 머리속의 계획은 주어진 기간동안 어떤 재미있는 것을 하면서 노느냐는 문제가 더욱 강한 현실로 다가온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

을 양분한다. 즉 공부하는 것과 잘 놀 수 있는 것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청소년들의 이러한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하는 반면, 때로는 벗어나게도 한다.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주말의 시간은 그들에게 황금같지만 빠르다. 그 빠른 시간에 청소년들은 친구를 만나고 재미있는 텔레비전 프로에 심취 해야하고 영화도 보아야 한다. 결국 휴일은 자신의 멋진 계획과는 상관없이 지나가지만 또 다른 휴일을 계획하면서 보낸다. 그것은 시간에 대한 아쉬움 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공부의 염려외에는 노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시간배분 형태를 학습시키지 못한 어른과 사회의 책임을 질 타하는 안타까움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청소년들은 학교가 아닌 공간과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즐거움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무척 귀중하게 생각하며 활동하려고 하지만 실제 시간활용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이나 의미가 크지 않은 행동만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그들이 각박한 시간들 속에서 비교적 많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의 당혹감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2) 무계획한 계획속의 긴 공부

새로운 달을 맞는 기분은 늘 설레이지만 두렵기도 하다. 특히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 첫 달은 매우 큰 긴장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된다. 그들은 빠른 시간동안 주어진 환경과 사람들을 올바르게 탐색할 수 있는 데 보낸다.

학생들에게 일년 중에서 가장 긴장되고 활기찬 때는 3월 달이다. 3월 초 학생들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등교한다. 그들의 관심은 학급담임교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이 누구인지 쫓겨 있다. 학생들은 학급담임 교사와 급우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환

경으로 인식하고 있다. 학급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식된다. 학생들은 누가 담임교사가 되든지 새 담임교사에게 적응할 마음의 준비를 갖춘다. (이영덕, p.36)

신입생이 아닌 경우에는 3월은 학기가 시작되는 달이므로 새로운 친구, 담임선생님 등에 적응을 하는 기간이다. 또 이 시기는 중학생의 경우 월정고사가 있는 날이다. 월정고사란 한 학기에 있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외에 한 학기에 두번에 걸쳐 주요과목에 대해서 치루는 시험이다. 사실 청소년들에게 시험은 학업의 여려부담 중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긴장과 압박을 가져다 준다. 학기 초의 시험은 자신을 평가하고 또한 선생님이나 학우들에게도 자신을 나타내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긴장감이 더욱 가중된다.

3월 이후 학생들은 춘계소풍, 백일장, 수련회, 사생대회, 교내합창대회와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학교인 경우에는 종교에 관련된 각종 행사를 치른다. 또한 그들은 중간고사와 학기말시험 준비를 하고 특히 고등학생은 대입준비를 위한 공부에 계절의 바뀔도 잊게 할 만큼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다달이 공부에 대한 계획을 하면서 생활한다. 이 때의 공부는 어떤 공부를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단지 공부를 해야하고 늘 공부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들은 공부에 대한 타당성이전에 아무런 생각없이 그냥 공부한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일상생활은 그 흐름의 마디마디가 '공부'와 연관되어 있다. 어떤 활동도 그 자체로서 비학구적인 활동도 있지만 그런 활동조차도 '공부'와는 무관할 수 없다. 예컨대, 쉬는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책상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눈을 부

릅뜨고 공부를 한다든지 아침 특강을 듣기 위해 일찍 일어난 학생이 오전수업시간 내내 졸다든지 하는 것은 이러한 권한을 보여 주고 있다. 요컨대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일과는 '공부'에 의하여 주도되고 또한 그것이 방과 후의 일과, 즉 도서관, 독서실에서의 공부, 집에서의 공부로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영덕, p.98)

학생청소년은 한달동안 많은 행동과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달이라는 시간은 오직 공부에서 벗어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시간표를 작성해서 시키는 공부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물론 고등학교 고학년이나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학년에 따라서는 보충수업시간의 연장 등으로 적지 않은 시간 공부에 시달리게 하지만 평균 하루에 7~8시간 안팎의 수업을 받고 있다. 물론 이것은 하루시간의 1/3에 해당하지만 방학과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그리 많은 시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한달 내내 공부속에서 파묻혀 산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타율적인 시간이며 또한 학생은 공부라는 사회적 인식이 절대시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들에게 공부는 계획도 할 수 없을 만큼 일상화되어 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통제된 틀속에서 한달이라는 전체 시간에 압박을 가한다. 즉, 한달을 공부라는 시간으로 조여놓고 있다.

3) 가짜 공부와 진짜 놀기

학생들에게 공부와 이별(?)하는 달이 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방학은 적어도 학생들에게는 자유로운 한달이다. 아마도 한달에 대한 계획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도

계획성 있게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달이 바로 방학일 것이다.

학생청소년들이 방학 때 해야 할 일은 무척 많다. 그들의 표현에 따르자면 밀렸던 공부도 해야하고, 여행도 가야하고, 못났던 잠도 실컷 자야하고, 보고 싶었던 책과 듣고 싶었던 음악도 마음껏 들어야 한다.

실천의 여부를 떠나서 누구나 방학을 앞두고 멋진 계획을 그려 본다.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학년일지라도 방학 때 해야할 공부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초조한 마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시간의 압박에 시달린다.

계획한 일정량의 방학학습을 해 놓으면 1,2학년들은 자유롭게 노는 편이다. 그들은 오락실에서 가서 오락을 한다든가 친구들과 만나 운동을 하고 또는 집에서 형제들과 놀이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는 등 주말의 생활유형과 큰 차이가 없다. 단지 여름방학에는 가족전체가 어디로든지 피서를 간다는 점이다. 그리고 고등학생 정도의 남학생들은 방학에는 친구들과 모여 운동을 한다. 때로는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친다든가 볼링장에 가서 볼링을 하는 등 중학생보다 성인들이 하는 운동을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고등학생들은 관심이 있는 활동이나 취미생활에 대해서 중학생보다 적극적이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자아의식이 싹트면서 감성적인 면이 개발되어 문학·음악등에 매우 관심을 갖게 되지만 방학중에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공부만을 강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못하든 간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황정규외 3인, p. 26)

대부분의 학생들은 방학기간에 두 가지 목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자 계획을 세운다. 하나는 소위 밀렸던 공부라고 일컫는 부족한 학과과목에의 보충이요, 다른 하나는 공부때문에 제약을 받았던 각종 놀이를 즐겁고 알차게 해

보는 일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들이 방학이라는 시간에 이 두가지 축을 조화시키려 하지만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무척 많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보다 근원적인데서 찾을 수 있다. 적어도 우리가 청소년육성의 기본목표를 흔히 이야기하는 지·덕·체의 바람직하고 균형있는 발전에 두고 있다면 학교에서의 공부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생들의 각종 학습 과정은 지적 발달의 범주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와 동등하게 바른 덕성과 품성 그리고 건강한 신체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이상적인 논리이다. 너무나도 많이 논란이 되어 온 지적 발달의 편중은 학생들의 생활시간을 구성하는 기본틀을 흔들고 있다. 즉, 학생들은 제도적인 —물론 덕성과 체력이 꼭 제도적인 형태의 교육으로 보여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겠지만— 체제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적 교육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낼 뿐 아니라 그것이 장차 사회속에서의 개인의 위치와 자격을 규정해 주는 사회환경 때문에 공부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으며 자아도 그렇게 내면화시킨다. 따라서 제도밖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루고자 하는 덕성이나 신체의 발달은 늘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때로는 그것이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고 덕성이나 신체의 발달을 모두 공부 즉, 지적 학습능력의 범주에서 이루고자 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순을 초래한다.

이같은 부조화는 결국 공부는 제일 중요하지만 강한 억압으로 다가오며 ‘노는 것’은 별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재미있는 것으로 보여, 오직 ‘노는 것’의 눈에 보이는 기능적

인 면만 추구하는 거들쭉된 잘못을 범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방학은 무척 다양하게 지낼 수 있는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해도 공부라는 강박관념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의미있는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만다.

4) 계획된 한 달의 모습

학생청소년들이 한 달의 시간을 몇 차례있는 토요일, 일요일, 나머지 평일들, 그리고 방학 기간 등의 집합체로 나누어 그들의 생활시간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한 달을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청소년들이 만나는 대상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시각이다.

청소년들은 한달을 가족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학교에서는 그리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생각한다. 그들이 의식하던 또는 못하던 간에 가정, 학교, 교외에서의 생활을 계획한다.

가정에서 청소년들은 한 달의 시간을 가족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다른 가족원과 많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낸다. 부모, 형제와의 관계속에서 그들은 청소년기의 속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다른 구성원들을 동일시하면서 생활한다.

청소년이라는 시기 또는 이유때문에 가정내에서의 그들의 역할은 수동적이다. 시간의 관점에서 그들의 생활이 가족의 한 달 시간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의사결정권을 갖고 능동적으로 시간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요원으로서 수동적인 행위자의 기능을 대부분 갖고 있다. 이같은 행위자는 한 달의 계획을 가족을 위해 할애해야 할 시간이나 일의 분담에 대한 고려보다는 자기중심으로 시간을 꾸미며 가족구성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시간이나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다시말해 그들은 가족과의 관계 더 나아가 가족을 위해서 한달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 달계획을 가족으로 부터 지지 받기를 원하며 때로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청소년들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가족내에서 갖는 즉, 부모와 갖는 시간 보다는 스스로 계획하여 가족의 울타리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찾는다. 우리는 어른들에게서 아이들이 커서 가족과 함께 외식 하기 싫어 한다는 섭섭함이 묻어있는 푸념을 흔히 듣는다. 소위 품안의 자식이라는 이야기는 청소년후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청소년의 강한 욕구와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영역에서 학생청소년들의 시간계획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시간표에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어려서부터 관행화된 한달의 한번 가족과의 외식이나 외출, 여행, 친척집에서의 모임 등에 참여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렇듯 가족과의 관계를 분리하여 시간을 맞추려는 청소년들은 한달의 시간을 효용성 즉,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중요시되는 일 중심으로 할애해 나간다.

이 중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계획하는 시간은 교외에서의 활동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친구와의 만남, 종교활동을 하는 시간, 음악회에 가는 회수 등을 한달의 시간중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느낀다.

결국 학생청소년들은 한달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며 실천하고 평가하여 다음의 달을 준비하는 노력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또한, 한달을 구성하고 있는 시간의 각기 다른 요인들 때문에 일관성있는 계획을 세워

진행하기는 어려우나 그들은 하루나 한 주일과는 다른 모습으로 한달을 맞이하고 생활한다.

그들은 한달의 시간을 주단위 또는 일일 단위로 아니면 내용을 중심으로 배분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생활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학업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그 시간들은 매우 개인적이며 때로는 배분방식마저 생각지 않는 피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3. 일년동안 무엇을 하나

학생청소년들에게 일년은 매우 긴 시간이다.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 기간동안에 청소년들은 어른들과는 달리 큰 폭의 심리, 신체적 성장을 보인다. 또한 학생청소년들에게 일년은 한 학년을 보낸다는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일년의 시간이지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 과정과 결과는 큰 차이가 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하루는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일년이라는 시간단위로 보았을 때 청소년들의 시간활용형태는 천의 얼굴로 나타나게 된다.

연초가 되면 일년의 계획을 세운다. 학생청소년의 경우 일년의 계획은 공부로부터 시작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년 중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학생이라는 신분때문에 늘 학업에 대한 강박관념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리고 그들은 학교생활과 학업외에 자신의 성장과 생활에 도움을 될 수 있는 갖가지 내용의 활동을 계획한다.

여기서는 일년이라는 시간을 학생청소년의 청소년기 활동과 문화 그리고 성장의 측면에서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알아봄으로써 그들의 시

간활용의 총체적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1) 끝없는 배움의 길

배움의 길은 끝이 없지만 학생청소년들에게 배움은 하나의 결과를 향한 과정일 뿐이다. 모든 학생청소년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의든 그렇지 않던 간에 그들은 제도라는 사슬에 묶여 상급학교 진학을 배움의 목표로 삼는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학교에서의 교육은 지·덕·체의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하나의 이상이 되어버린지 오래이다. 청소년들은 지·덕·체를 통합하여 진학이라는 학습들속에서 매일 배우며 생활하고 있다. 그들은 일년 중 배움이란 계속적인 과정을 통한 학습이 지식과 정보의 인지로 변해버린 공간속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낸다.

고등학생들이 그들 생활의 핵심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공부'란 교과를 학습하는 것을 뜻하며, 특별활동은 '공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이 규정한 교과에는 '주요과목'과 '기타과목'이라는 위계가 있다. 학생들은 교과학습만이 공부라고 생각한다. 현행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교육과 특별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특별활동은 인간교육 혹은 전인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교과 학습과는 별도의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교사는 물론 학생들도 특별활동을 '공부'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특별활동 예컨대, 소풍, 수학여행, 체육대회, 합창대회 등은 '행사'라고 불리우는 명백히 수업에서 제외되는 활동이다. (이영익, pp.98-99)

이러한 이유는 공부가 상급학교 진학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생활을 공부하는 시간과 그렇지 않는 시간으로 구분한다. 공부하는 시간은 진학에 필요한 학습과목을 수업할 때이고 그렇지 않은 시간은 그들이 생각하는 -진

학시험에 관계되는 과목— 공부를 제외한 학교 내에서의 모든 시간이다.

학생청소년들은 한 학년동안 학교에서 두 가지를 얻는다. 하나는 진학시험에 필요한 공부와 각종 자료를 습득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친구교제와 공부속에서 벗어나는 즐거움을 주요한 과목이외의 시간에서도 얻는 역설을 가진다.

그들은 한 해동안 공부의 성과를 위해 노력하며 자신이 원했던 성적이나 상급학교의 진학을 통해 거의 한해동안 투자했던 시간의 전부를 평가한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한 해동안 거의 매일 쉬지 않고 배우며 그것을 위해 생활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은 배움을 점수화하는 방법을 얻고, 성적표를 시간의 결과물로 갖게 된다. 이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관계없이 청소년들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매우 큰 시간의 덩어리에서 원하지 않는 객관적이며 못마땅한 점수의 낙인을 강요당하고 또한 그것을 가진다.

2) 보이지 않는 모습

청소년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한다. 그들의 생각과 신체가 모두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 청소년 자신이나 사회 모두 그 변화가 그를 포함한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청소년들은 자유롭고 싶어한다. 그들이 갖는 시기는 사춘기로 대표된다. 사춘기는 성역할의 정체감을 이루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가치를 내면화하는 주요한 계기가 된다. 그 시기에 전생애 걸친 자신의 인생관과 사회적 성격의 큰 부분을 완성한다. 그들은 사

랑과 인생, 그리고 죽음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인 명제일 뿐이다. 이러한 배움은 공부라는 커다란 공룡앞에서 하나의 사치이고 왜소한 몸부림이 되고 만다.

그래도 많은 청소년들은 일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며 또한 실제 의식하지 못하지만 적지 않은 일을 한다. 이같은 일을 통해 청소년들은 심리·사회·신체적으로 성장·발달한다. 청소년들이 일년에 걸쳐 하는 일은 그 자신의 생활양식의 유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자신의 성격에 따라 생활양식이 결정되고 그에 의해 행동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일에 부딪치든 간에 독특한 형태속에서 움직인다.

여 운승은 청소년의 생활양식 유형을 편의적 물질 추구형, 현실비판형, 독립성취지향형, 스포츠선호형, 가족중심형, 정보탐사형, 변화추구형, 집단참여형, 전통주의형, 현실만족형, 신앙중시형, 개인주의형, 절약형, 생존공평형, 건강주의형 등 15가지로 나눈 뒤, 한 조사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은 편의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유형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보다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기질을 보여주는 독립성취지향형이나 집단참여형, 현실비판형 등은 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 운승, p.195).

이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일년동안 변화보다는 안정속에서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생활한다. 이것은 사회문화적 배경은 물론 학생청소년들이 현재 처해있는 입장과도 상관이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청소년들이 일년이라는 시간을 매우 수동적인 생활양식으로서 채우고 있다는 간접적 증거도 된다.

그들은 일년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는 정확한 인식없이 하루의 시간, 짜여진 시간속에서 이끌려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행위와 일

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의 선택에 따라 즉 청소년기의 욕구에 따라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의 제한을 느끼기때문에 재미있고 보람있게 하는 행위도 늘 위축된 상태로 진행된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성취하는 일이 꼭 가지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성숙하고 있다. 행위와 사고가 변화하고 타인과의 관계도 늘 새롭게 정립한다. 가정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행위형태가 점점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속에서 자신의 개성을 찾는다. 이같은 심리적인 성장은 현실과 이상사이의 괴리속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다른 경우 주위의 여러사람에게 심한 피해를 입히는 행동의 근원을 제공한다.

어른에 비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일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여러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나간다. 또한 이것은 앞으로 삶의 전과정을 거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한편,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3) 얻는 것과 잃은 것

한 해의 시작은 1월이다. 새해 첫날 달력의 큰 숫자가 눈앞에 다가오면 청소년들은 결심을 한다. 올해는 성적을 올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줄넘기와 체조를 통해 몸을 튼튼하게 하고, 한달에 몇권이상의 책을 읽으며,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 그리고 친구들과 자주 싸우지 않고, 우리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듣겠다는 상당한 분량의 자기와의 약속을 한다.

이 약속이 일년동안 지속되든 또는 그렇게 되지 않든 간에 첫 달의 의미는 한해를 멋지게

그리는데 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방학기간이 마음을 안심시켜며 새해를 맞는 즐거움과 희망에 넘쳐 시작한다. 청소년들은 어른에 비해 더 큰 소망을 새해에 가진다. 청소년들에게 과거는 빨리 지나갈수록 좋다. 그들은 늘 미래에 살고 있다. 공부라는 중압감에 시달리면서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조금은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고 새로운 일에 대한 시도도 해본다. 친구들과 어울려 그냥 돌아다니 보기도 한다. 잠시 학교에서의 생활을 잊고 싶은 그들은 한살의 나이를 더해 성숙해가는 자신을 스스로 감지하고 싶어한다. 좀더 어른스럽게 생각도 해보고, 동성이나 이성 친구와의 관계도 다른 차원으로 이끌고 싶어한다. 또한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더 많이 이해하려는 노력도 해본다.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와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또래집단과 어울려 돌아다니고, 때로는 수영, 스케이트, 팝송에 혼자 심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듯 느슨하게 풀어진 마음은 개학이 다가오면서 초조감으로 바뀐다. 방학으로 긴 시간을 소비했는데 뚜렷이 해논 일이 없고, 계획대로 진행된 사항이 없다는 자책감과 두려움에 당혹스러워 한다. 중·고등학교시절 동안에 6번 정도 밖에 없는 방학을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새학년을 맞이해야 하는 곤혹스러움은 실제 많은 것을 이룬 청소년이라도 갖는 즉, 누구에게나 있는 심리적인 불안감이다.

그것은 적어도 방학이 학생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유로운 기간이므로 그 시간을 소비하였다는 데서 오는 심적인 부담이 크며 개학을 하고 학교에 다니면 일정한 시간을 통제받으며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한 그것은 간혹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변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개학과 함께 이러한 증상을 어렵지 않게 극복한다. 그들에게 학년 초의 개학은 지난 학년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학년의 시작을 의미한다. 사실 공부가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학습과정 이전에 상급학교의 진학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현실적인 비판의 풍토에서 상급학년으로의 진급은 큰 의미를 갖지 않지만 새로운 친구, 환경, 그리고 자신을 물리적 변화에서 들여다보는 또 하나의 삶의 계기가 된다. 또한 한단계 높은 교과목을 공부하며 새로운 학습풍토를 조성해 나간다. 이같은 탐색의 기간은 교외에서의 행동에도 제약을 주어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게 한다. 비행학생이라도 낮모르는데서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듯이 청소년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친구관계나 새로운 학습과정에 대한 적응을 위해 애쓴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무난히 적응해 나가지만 적지않은 청소년들이 현재보다는 과거에 집착하는 등 적응하지 못해 일년내내 갈등과 괴로움을 겪는다. 그들은 예전의 행동을 찾는 등 퇴행현상도 보인다. 전 학년에서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만 찾아서 어울리며, 심지어 휴식시간이나 방과 후에도 그들을 찾아 생활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에서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현재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폐쇄적 세계를 구축한다. 이런 경우 하나의 개인적 성격차이에서 비롯되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이지만 간혹 이같은 행동이 심해져 이전과는 매우 다른 세계속으로 즉 비행이나 지나친 자책감, 열등감, 소외감 등에 빠져들어 예기치 못한 행동양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과정이 진척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생활도 자리를 잡는다. 공부 잘하는 학생,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학생, 우스게 소리를 잘하는 학생, 말성꾸러기 등 자신의 성격과 행동특징을 나타내며 학교에서 집으로, 집에서 학교를 바쁘게 왕래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수많은 지식과 만난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물리, 역사 등을 외우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또한 그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점친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이나 행동을 이탈시키고 싶어한다.

나는 가끔 종소리가 울리고 한참 후에도 선생님이 안들어 오시면 가벼운 흥분을 느낀다. 때로는 귀를 쫓긋 세워 발자국소리를 들으려 애쓴다. 실컷 떠들던 아이들도 조용해진다. 혹시 오늘 '독어'선생님이 아프신 것이 아닌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는가. 사실 선생님이 결근하셨어도 우리에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우린 그 시간에 분명 자습을 해야하고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일도 아닌데... 그래도 아이들은 즐거워한다. 선생님이 안오시면.

점심시간의 외출, 방과 후 햄버거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잡담을 나누는 일. 그런 시간들이 지식의 압박속에서 늘 가시방석같은 불안에 둘러 있다는데 안타까워한다.

1학기(봄학기)는 지루하다. 적지 않은 교내외의 행사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행사로서 끝난다. 어느때 피곤하기까지 하다. 실제로 소풍, 수양회, 합창대회 등은 즐거운 학교행사이고 가족과 함께 놀러가는 것도 즐겁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즐겁지만 그 당일은 또 내일이 기다리기 때문에 불안하다. 배우는 곳이 학교이고 다른 행위는 공부에서 벗어나는 오락이며 휴식이다. 결국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의 부메랑속에서 청소년들은 살고 있다.

여름방학이 되면 많은 청소년들은 여행계획을 세운다. 부모와 바둑고단기사의 수를 능가하는 싸움을 벌리며 허락을 받아 친구들과 여행을 떠난다. 그들에게 여행의 목적은 공부를 벗어나는 것이다. 바다로 가서 해수욕도 하고 키타치며 노래도 한다. 산에가서 노래부르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한다. 산의 많은 나무, 바다의 멋진 정경들을 바라보며 나무의 이름을 외우며 노을을 바라보며 젊음을 생각하기엔 머리가 너무 지쳐있다. 그냥 자기들의 온어를 써가며 논다.

결국 청소년들은 수많은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 모두 공부라는 강박관념에 얽매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학기는 청소년들에게 1학기보다 많은 부담을 준다. 공부하기에 좋은 계절은 반대로 놀기에도 좋다는 뜻이 된다.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아니면 진학을 앞에 둔 학생은 또 다른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때, 자신의 삶이 유보당하고 있다고 느끼며 행동 하나 하나의 이유보다 그 과정을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인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청소년은 일년의 과정속에서 시간과 시간속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내용과 행동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의미는 잃어가고 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잃어가는 것보다는 기억의 저편으로 물리치며 생활하고 있다. 그들은 지식과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오는 면책의 기쁨을 누리지만 자신의 문화와 생각을 행동화시키는 시간을 하나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조차 언어적표현과 시간표처럼 짜여진 행동으로 인식하며 생활하고 있다.

III. 청소년 생활시간활용 및 수련활동 시간

1. 생활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학생청소년들의 일상생활시간은 활동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시간양에 따라 크게 수면시간, 학교수업과 그외의 공부시간, 식사, 신변잡일 등 생활필수 시간과 여가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설문분석 결과 학생청소년들의 하루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수면시간은 평일 7시간 15분정도이고 토요일 7시간 40분, 일요일 8시간 10분이었으며, 학교수업 및 공부시간은 평일 11시간 30분, 토요일 8시간 30분, 일요일은 3시간 50분이었다. 식사, 등교준비, 이동 등 생활필수시간은 평일 3시간 39분, 토요일 4시간, 일요일 3시간 30분 정도였다. 그리고 여가시간은 평일 3시간, 토요일 4시간, 일요일은 7시간이었다.

학생들이 좀 늘었으면 생각하는 시간은 여가시간 21.8%,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19.1%, 잠자는 시간 17.5%, 책읽는 시간 15.2%,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으로는 여행 32.3%로 제일 많았고 그외에 여학생들은 아르바이트 15.2%, 친구들과의 오락활동 12.4%, 독서 11.4%, 스포츠활동 9.0%이었고, 남학생들은 친구들과의 오락활동 18.4%, 스포츠활동 14.3%, 아르바이트 11.3%, 혼자서의 사색 7.6% 순서로 차이를 보였다.

2. 수련활동 시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나

청소년 수련활동을 스포츠, 문예, 봉사, 전통문화, 과학, 예능, 자연체험, 예절수양활동 8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그 활동의 참여여부, 현재하고 있는 활동,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 시간이 많아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스포츠활동 61.7%, 문예활동 72.3%, 봉사활동 18.3%, 전통문화활동 14.9%, 과학활동 26.5%, 예능활동 72.3%, 자연체험활동 49.2%, 예절수양활동 28.0%로 거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봉사활동과 전통문화활동 영역에서는 극히 저조한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필요하지만 시간이 많아야 할 수 있는 활동에서 스포츠활동중 수영 12.7%, 문예활동중 창작발표회 12.7%, 봉사활동중 농촌봉사활동 25.8%, 전통문화활동중 문화유적지탐사 18.9%, 과학활동중 컴퓨터배우기 17.3%, 예능활동영역 악기강습 13.7%, 자연체험활동중 국토조사 18.7%, 예절수양활동은 혼례·제례·상례배우기 30.3% 등이 제일 높았다.

또한 필요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스포츠활동중 자전거타기 18.7%, 문예활동중 일기쓰기 33.2%, 봉사활동중 국군장병계 편지쓰기 49.7%, 전통문화활동중 민속놀이 21.3%, 과학활동중 동식물관찰 16.7%, 예능활동중 음악감상 22.8%, 자연체험활동중 화단꾸미기 35.5%, 예절수양활동중 식사예절배우기 26.9%등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었다.

IV. 바람직한 수련활동시간 확보방법

1. 무슨 욕구를 가지고 있나

학생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욕구는 발달단계상의 욕구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들의 신체적·지적·정의적 사회적 발달에 따라 활동성이 크고 모험심도 충족시킬 수 있으며 협동적이고 창의적 활동에의 참여욕구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정체감 확립의 형성시기인 만큼 자신의 존재, 주변과의 관계에 민감함을 보이면서 전통에 대한 의식과 관심도 높은 것으로 미루어 자아발견과 개성발휘에 필요한 그리고 이 과정에서 흔히 겪는 실존적 공허감을 배우기 위한 활동에의 참여욕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2. 어떤 기회를 줄 것인가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선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한 환경요인인 가정의 기능강화, 학교교육의 정상적 기능회복, 친구등과의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접근해야 하는 한편, 여가활동의 차별화와 다양화를 통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3.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제도적인 시간확보의 방법과 함께 본 논의에서는 그와같은 필요성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시간속에서 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와 가정, 그리고 학교외에서 그들의 수련활동참여시간 확보방안을 예시적으로 제안

하였다.

- 가. 학교에서의 교과시간 중 음악, 미술, 체육, 자치활동 시간을 정상화시킨다.
- 나. 학교내의 클럽활동을 활성화시킨다.
- 다. 시간활용방법을 교육시킨다.
- 라. 가족과의 아침식사시간을 통해 자연스러운 수련활동프로그램 중 일부가 용해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 마. 시간과 그 시간의 활용의미를 제고하기 위해 감사의 인사하기등의 간단한 가정예절 프로그램을 생활화한다.
- 바. 수련활동의 내용과 의미를 교육시킨다.
- 사. 직·간접적으로 청소년수련활동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방송매체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수련활동참여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같이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는 시간의 양적인 문제해결로서 가능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청소년의 반복되는 일상생활시간에 직·간접적 의미와 활동형태를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수련활동은 그 목적과 취지로 보아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활동이지만 입시위주의 현행 교육제도와 구조적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의식전환과 관련 당사자와의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의 양을 확보해 수련활동시간으로 편성, 제도화한다면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자치 수련활동이 그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입시를 위한 또 하나의

과목, 또는 행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는 관점에서 나온다.

따라서 이렇듯 제도화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에 선행하여 다른 시각에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시간을 조명하고 수련활동참여시간 확보를 수련활동의 적극적 기회를 만들어 주기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수련활동의 실행을 위한 환경조성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수련활동의 전체적 참여동기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논의는 제도적인 수련활동시간 확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그것은 확보의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와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정책의지와 합의로서 확보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그간 논의되어온 교육과정개선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 하였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대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그들의 상황을 고려한 수련활동참여시간 확보의 기본적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바,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관한 욕구와 참여동기는 강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의 제약성 때문에 청소년들 스스로도 자신의 얽매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관심은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신의 고리를 풀고 수련활동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주변여건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의식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련활동참여시간확보 방안을 그 구체적인 방법 마련 이전에 수련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청소년들과 주변 성인들의 자신의 시간을 만들려는 노력이 선행될 때 세부적인 방법이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정이 된다.

여기서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일상생활시간속에서 합리적인 수련활동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의 제안은 상징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예시가 될 수 있다.

제언 1 :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련활동이 청소년 건전육성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 국민적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실적으로 학생청소년들이 그들의 의지대로 학업이외의 시간을 가질 수 없는 반면, 교양 및 취미활동 등 학업외적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실정이다. 이같은 점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이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정책제안자나 수혜자인 청소년들만의 욕구로 수련활동에 대한 시간이 확보되어 질 수는 없다. 즉 학생들의 욕구는 그들의 신분과 청소년이라는 제약때문에 사회적 환경과 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수련활동이 앞으로 바람직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요소이며 청소년교육의 주요한 틀이라고 모든 국민이 인식하게 될 때 수련활동의 목표가 성취될 수 있으며 이와함께 시간확보는 당연히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제언 2 : 청소년수련활동 시간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시간속에서 찾아야 한다.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들의 덕성과 품성, 그리고 신체를 올바르게 발달시키기 위한 조

직, 비조직적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면,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시간은 가능한 한 그들의 일상생활시간 안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만일 획기적인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없이 수련활동의 긍정적인 면만 강조하여 현재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 욕구나 생활시간주기를 고려하지 못한 채, 제도적으로 일정시간을 그들에게 제공한다면 이것은 자칫 또 하나의 의무의 시간이 되어 아무리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유익한 수련활동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할지라도 수련활동의 기본적인 목표와 가정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왜곡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시간의 확보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활동과정과 내용을 토대로, 그 속에서 수련활동으로 전환 또는 구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들어 현재의 학생들의 생활과정속에서 새로운 혼란이 없이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시간 즉 수련활동과 관련한 음악, 미술, 클럽활동등을 정상화, 활성화시키며 가정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같은 방법은 수련활동으로 일정시간을 의무화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수혜자에게 지속적인 동기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언 3 : 수련활동시간확보방안을 단순한 환경요인의 변화나 개선이 아닌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청소년 수련활동참여시간 확보가 청소년수련

활동을 위한 여건조성의 측면에서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나아가 고려해야 할 것은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시간 확보가 피동적인 여건조성의 관점에서 보다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또한 정상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틀이 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시간확보와 함께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의 필요성과 참여의 동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좋은 예는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조사결과에도 보여 주듯이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에게도 대중매체는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통해 수련활동을 제공하고 또한 그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그들에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내용구성을 한다면 청소년들은 개인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스스로 시간을 찾아서 참여하는 동기요인이 된다.

수련활동참여시간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기회제공의 철학을 갖고 수련활동의 시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는 일은 시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시간활용에 관한 개별적 관심을 유발하게 매우 긍정적인 동기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

제언 4 : 청소년을 포함해서 국민모두에게 수련활동에 관한 내용과 정확한 의미를 인지도시켜야 한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청소년들과 주변의 많은 어른들은 학업을 중심으로한 교육과정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의식하던 못하던 간에 많은 수련활동과 관련된 행위와 내용에 대

해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련활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따라 청소년들 스스로의 욕구를 행동화시킬 수 있고, 그들을 둘러싼 주변 어른들의 반응도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그들의 신체와 덕성, 그리고 품성등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과 내용을 인지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제언 5 : 청소년들에게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시켜야 한다.

시간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라는 것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즉, 시간이 양적인 개념일 수 밖에 없더라도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의 의지와 인식에 따라서는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청소년들에게 많은 교육내용을 제공하면서도 그들이 스스로 또는 제도적으로 시간을 조절하는 능력등에 대한 훈련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시간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들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똑같은 시간이라도 타율적으로 보낸다는 의식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시간활용에 관한 올바른 교육은 수련활동의 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자신에 맞는 수련활동참여시간을 확보하는 간접적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권이중(1989). 청소년문화와 정책. 서울:배영사.
- 김영모외(1988). 청소년여가선용을 위한 스포츠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청소년연맹.
- 김영환(1986). 청소년들의 여가활용의 실태와 그 개선방향에 관한 조사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집.
- 김유진외(1980).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서울: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부설 청소년문제연구소.
- 박준형(1990). 하나님께 이를꺼야. 서울:고려문화사.
- 박아청(1990). 청년과 아이덴티티. 서울:배영사
- 백영현(1986). 우리아이들. 서울:녹두.
- 서울특별시교육원(1984). 여가교육. 서울: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 신용석(1991). 현장에서 본 프랑스교육. 서울:서당
- 여운승(1985). 한국청소년의 생활양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한양대 경제연구소.
- 이상경(1991). 이땅의 아이들과 함께. 서울:친구
- 이영기외(1982). 한국 청소년의 생활과 산업사회의 사회과교육. 서울:한국 정신문화연구원.
- 이영덕외(1991). 중·고등학생의 생활과 진로에 관한 종단적 연구. 서울:서울대 교육연구소.
-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1989). 밥먹으며 시계보고 시계보며 또 먹고. 서울:사계절.
- 한국방송공사(1990). 국민생활시간조사. 서울:한국방송공사.
-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1990). 레크리에이션 지도서. 서울: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
- 한국일보사편(1990). 신세대-그들은 누구인가상. 서울:한국일보사
- 황정규외(1989). 한국인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서울:한국정신문화연구원.
- James F. Murphy(1981). *Concepts of Leisure*,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Tony Jeffs and Mark Smith(1987). *Youth Work*, London: Macmillan Education LTD.